



WBC와 한미 FTA

지난 3월 한달간 우리 국민들은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투지와 성과에 대해 열광해 왔다. 한국야구를 마이너리그 더블A 수준으로 폄하하던 미국을 대파하는가 하면, 숙적 일본을 두차례나 완파하는 등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국 중 유일하게 6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선착했다. 비록 준결승에서 어이없는 대진으로 3번째 만난 일본에 패하기는 하였지만, 그간 우리보다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던 미국, 일본, 멕시코 등을 연파하며 세계 야구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로이 각인시키고 국민들에게 지난 월드컵에 못지 않은 기쁨과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메이저리그를 세계최고의 리그로 자부하며 결승전을 미국시리즈가 아닌 월드시리즈로 호칭하던 미국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쿠바 등 유수의 강호들이 포진된 남미팀들을 피하기 위해 상대하기 편한 팀들을 미국과 같은 조에 묶었고, 다시 미국이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진출하기 유리하도록 같은 조 내의 1, 2위 간에 준결승을 치르도록 하는 엄청난게 이상한 경기 운영방식이 고안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전과 멕시코전에서 보여준 어이없는 오심은 우승을 위해 심판까지 동원한 미국의 노력이 눈물겹게까지 보이게 했다.

미국의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지만, WBC 역시 돈벌이를 포함한 스포츠 외적인 성격이 강한 대회이다. 야구 중추국인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관중 수와 TV 시청률을 통해 중계료, 광고수입, 또 기타 관련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결승까지 진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증명을 해 보이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독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진표를 미국의 결승 진출에 유리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의 그러한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군림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더우기 우려가 되는 것은 비단 야구경기 뿐만이 아니라 한미 FTA에 있어서도 WBC에서와 같은 운영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은 스포츠나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나 각종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런 미

국과 우리가 FTA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WBC와 같은 스포츠경기와는 달리, 한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어떤 산업은 흥하고 어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산업은 기반 자체가 무너져 향후 국가전체에 미칠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거대자본과 막강파워를 지닌 미국과의 FTA가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미 FTA는 시장개방의 논리 하에 미국에 유리한 경쟁환경을 체계적인 방어조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의 제도와 규칙, 그리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정 등이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해 이번 WBC 대회처럼 불공정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매일같이 불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 대표는 “한미 FTA의 핵심이 농업시장 개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협상목표를 농업으로 정조준했고, 우리정부와 재계는 안이하게도 미국이 월등히 강한,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떠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농업을 먼저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처음부터 약자들만 모아놓고 미국이 한 조를 짠 WBC 대회규정과 다름없는 운영방식을 받아들여자는 것과 다름없다. 경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경쟁은 서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미 FTA는 시간을 가지고 양국간 경제적인 득실을 철저히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할 국가적 대사이다. 무리하게 서둘러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바로 농촌사회이다. 그러한 농심(農心)이 지금 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와 지난 쇄고기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서 우리 농민들은 뜨거운 분노를 느꼈고 반미(反美) 구호가 등장했다. 이는 일부 주도세력에서 나온 구호가 아닌, 순수한 농민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세력에 맞서온 미국의 가장 친밀한 우방의 하나였고 혈맹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왔다. 그러한 우방국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농촌사회마저 등을 돌릴 만큼 미국은 스스로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경찰과 민주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미국이 그만큼 대접을 받으려면 좀더 대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온갖 유리하고 편파적인 조건 속에서도 탈락하고 말았던 WBC대회의 전철을 국제사회에서도 되밟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